

세상 모든 ‘흥’이 몰려온다…30일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원도심 일대서 3일간…마당극·전통연희·공중극예·탈놀이·마술 등
광복 80주년 기념 1945년 당시 ‘목포 광복탑’ 복원…풍물놀이 한마당도

제25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이하마당페스티벌)가 오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목포시 차안 다니는 거리 등 원도심 일대에서 열린다.
극단 갯돌과 (사)세계마당아트진흥회가 주관하는 마당페스티벌은 ‘여기영차 마당아!’란 주제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더욱 풍성한 시민 참여형 콘텐츠로 진행된다.
마당페스티벌에는 마당극, 전통연희, 공중극예, 인형극, 탈놀이, 파이어쇼, 마임, 마술, 국악, 가요, 클래식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이 거리에서 펼쳐진다. 개막놀이는 30일 ‘여기영차 마당아!’란 슬로건으로 광복 80년 대동축제로 열린다.
각종 대형 인형과 일제강점기 목포명물 육단이를 비롯한 다양한 인물군상의 퍼레이드와 프랑스 극단 아마니의 거리 퍼레이드에 참여한다.
개막놀이의 절정은 1945년 당시 시민의 힘으로 ‘광복탑’을 세웠던 역사를 복원해 해방의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해외초청공연은 프랑스 극단 아마니의 거리극 ‘세 얼굴의 오케스트라’로 세 개의 머리를 가진 대형 인형과 음악가들로 구성된 키메라 오케스트라가 관객과 함께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면서 유쾌한 퍼포먼스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프랑스 아비뇽축제, 살롱축제 등에서 호평을 받은 작품이면서 러시아, 스위스, 그리스의 연극축제에 초청돼 인형이 결합된 독특한 형식으로 주목을 받았다.
국내공연으로는 수학적 개념을 신명난 마당극으로 극화한 예술공장 두레의 전통연희극 ‘마방진’, 인간의 본성과 자유를 동물농장에 빚낸 창작집단 쟁이의 풍자탈춤 ‘그뚱 남자’ 등이 진행된다.
또 마리오네트 인형과 오토마타 오브제가 만나는 그림책 작가 박연철의 판타지 인형극 ‘헨젤과 그레텔 인 판타지’, 비보잉과 거리예술을 융합한 에이런 크루의 ‘와작’, 강원도 정선 무명 뗏꾼의 드라마틱한 생애를 그린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의 창작소

리극 ‘뗏꾼’ 등 국내 유명 공연 20여 작품이 마당판을 신명으로 달군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로 목포의 역사와 감성을 담아낸 특별 프로그램인 ‘목포로컬스토리’가 진행된다.
‘목포로컬스토리’는 4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1945년 광복 직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목포 광복탑’을 80년 만에 재현한다.
광복 80년을 기념해 시민이 직접 수제맥주를 만들어 축제 당일 시민과 함께 ‘목포광발춤 라이브’로 맥주파티를 연다.
또 전남서남권 풍물패 200여명이 모여 80년 전의 해방의 울림을 기념하는 ‘목포풍물놀이한마당’을 마련했다.
목포출신 박화성의 소설 ‘호박(1937)’의 시공간을 확장해 각색한 시민 야외극 ‘엄마의 해방일기’로 목포 죽동의 콩나물 동네를 소재로 감동을 전한다.
이 외에도 목포원도심상인회와 함께하는 야시장, 프리마켓, 오쇼임 경품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온 동네를 마당 무대로 밝힌다.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마당페스티벌은 거리에서 마당에서 예술이 시민을 만



프랑스 극단 아마니의 거리극 ‘세 얼굴의 오케스트라’.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추진위원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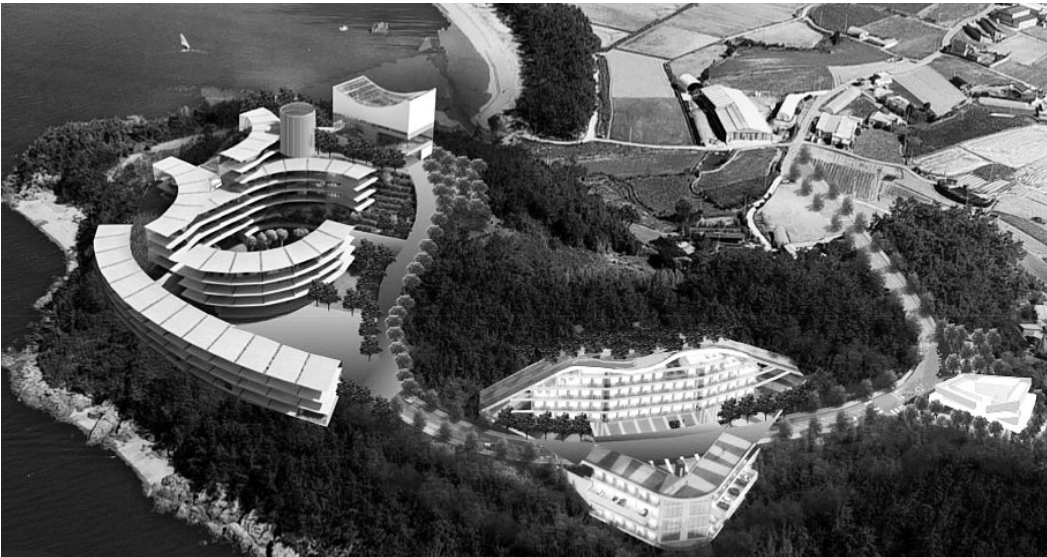
나고, 전통과 현대가 함께 어우러지며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라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하고 깊어진 목포의 마당에서 모두 함께 즐기는 특

별한 시간으로 채워져 벌써부터 시민과 관광객에게 기대를 모으고 있다”라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2400억 ‘무안 도리포 리조트단지’ 조성 속도

호텔·폴빌라 등 350실 규모
전남도 도시계획 심의 통과
2027년 하반기 완공 목표

무안군 해제면 ‘도리포 리조트단지’ 조성사업이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도리포 리조트단지 조성사업은 2022년 4월 전남도와 무안군, ㈜도리포카이파 간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사업을 시행하는 도리포카이파는 총 2400억 원을 투자해 호텔(245실), 폴빌라(105실), 연회장, 락카페 등 다양한 휴양시설을 조성한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풍부한 관광자원과 먹거리, 우수한 접근성 등 지역의 강점을 활용해 관광산업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리포 관광명소화 사업”과 ‘서남해안 명품관광 조성사업’과 시너지지를 이루며 새로운 해양관광



무안군 해제면 도리포 리조트 조감도.

거점으로도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앞으로 ▲5월 군관리계획 결정과 고시 ▲7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8월 건축허가 절차를 거쳐 하반기 착공해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도리포 리조트는 무안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완도군 ‘바다 식목일’ 정화 활동

신지면 동고리서 진행…효성그룹 등 참여 해양 생태계 보호

완도군은 바다 식목일(5월 10일)을 맞아 잘피 씨앗 파종과 바다 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완도 신지면 동고리에서 진행된 이번 활동은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블루카본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효성그룹,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와 함께 진행했다.
신지면 동고리는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완도군과 효성그룹,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가 총 13억 원을 투자해 ‘탄소 중립과 바다 생태계 보전 ESG 경영 실천’을 위해 바다 숲을 조성한 곳이다.
신지면 동고리 주민들도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추진 중인 바다 숲 사업에 대한 홍보 영상을 시청한 뒤 잘피

씨앗을 흙이 담긴 모판에 직접 심었다.
잘피는 해양 보호 생물이자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에서 인증한 대표 블루카본으로 그린카본보다 최대 50배 이상 빠른 속도로 탄소를 흡수한다고 알려져 있다.
완도군에서 2024년 기준 완도 지역의 잘피 분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분포 면적은 약 10.54㎢이며 소안면, 노화읍, 금당면 순으로 잘피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잘피와 해조류 바다 숲이 수산자원 보호 및 탄소 중립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잘피 면적을 확대하는 등 해양 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진도군, 66개 마을서 ‘찾아가는 물리치료’



진도군이 ‘찾아가는 물리치료센터’를 66개 의료취약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진> 진도군보건소가 제공하는 찾아가는 물리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 여건이 열악해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보건지소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직접 마을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다.

진도군보건소 관계자는 “공중보건조사 감소에 따른 지역 보건 의료서비스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보건지소 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오전에는 소내 진료, 오후에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목포시 ‘국립세월호생명기억관 건립’ 논의

지역상생협의체 첫 회의…일자리 창출·어촌계 활성화 등

목포시가 최근 국립세월호생명기억관 건립과 관련해 지역과의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상생협의체는 해양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 추진단 주관으로 지난 4월 열린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에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구성됐다. 협의체에는 고하도 주민대표, 유가족, 목포시, 해양수산부, 환경영향평가전문가 등 이해 관계자가 함께 참여했다.
지난 21일 열린 회의에서는 생명기억관을 활용한 지역 상생 방안으로 일자리 창출, 고하도 어촌계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구상(안),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방향 등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으며 참석자 간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있었다.

지역상생협의체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세월호 선체 처리 이행 사업 공유수면 매립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회의는 분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로 열릴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지역 주민과 유가족, 관계 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상생 방안을 논의한 뜻깊은 첫걸음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생명기억관의 원활한 조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립세월호생명기억관 건립 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 용역 단계에 있으며 2026년 착공과 2029년 준공을 목표로 모든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포근포근 달콤한 밤 맛 ‘해남 미니밤호박’ 출하요~

71.9ha 276농가 재배 ‘특화작목’
비타민 풍부·다이어트에도 효과

해남군의 대표 특산품인 공중재배 미니 밤호박 출하가 시작됐다.
해남에서 나는 단호박은 그냥 단호박이 아니라 밤호박이라 불린다. 포근포근 달콤한 밤 맛이 나는 호박이라는 뜻이다.
포근포근 달짝지근한 맛에 어린이들도 맛있게 잘 먹고 베타카로틴, 비타민 B1, B2, C 등이 풍부해 남녀노소 감기에방과 면역력에도 좋다. 여성들의 피부미용과 다이어트에도 좋은 식품이다. 당도가 12브릭스 이상으로 달콤하지만 저항성전분이 다량 함유돼 체중조절과 비만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5월 중순 수확을 시작한 미니 밤호박은 약 일주일 가량의 후숙기간을 거쳐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해남에서는 276농가 71.9ha에서 밤호박을 재배하는 대표 특화작목이다. 특히 해남에서 생산되는 미니 단호박은 시설하우스내 친환경 먹 시설을



해남군 계곡면 진수연씨 농가에서 밤호박 수확이 한창이다.

<해남군 제공>

이용해 바닥에 닿지 않고 공중에서 재배된다. 흙에 닿지 않아 눌린 자국없이 모양이 예쁘고 골고루 햇빛을 받아 품질이 월등하다.
해남군 관계자는 “밤호박은 체에 받쳐 찌거나 전자렌지에 돌려서 익혀 먹으면 그 자체로 훌륭한

간식”이라며 “각종 요리와도 조화롭게 어울려 맛과 식감을 돋우는 요리재료이고 여름철에는 부드러운 맛으로 달콤한 음료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완도 여행하고 사진으로 기념품 받고

다음 달 8일까지 SNS 이벤트…해조류센터 내 사진 무료 인화 부스

“완도 여행하고 ‘치유 네 컷’ 이벤트 참여하세요.”
완도군이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다음 달 8일까지 ‘완도 치유 네 컷’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완도 치유 페이’ 현장 안내소에 설치된 사진 인화 부스 이용객(선착순 1000명)에

게 기념품을 증정하는 방식이다.
참여 방법은 사진 무료 인화 부스에서 출력한 사진을 촬영해 개인 SNS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 후 직원에게 보여주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사진 무료 인화 부스는 완도 해조류센터(완도읍

해변공원로 84) 내 위치해 있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를 여행하며 찍은 사진을 인화해 추억을 간직하고 완도를 기억할 수 있는 기념품도 받아 가시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여행 경비의 최대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완도 치유 페이’와 관광 시설 입장료 할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